

경상북도 의회소식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http://council.gb.go.kr> 2015. 4.



경주보문로의봄

자연안내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장소식 / 외장만병 2~3면 - 제276회 임시회 개최, 의정소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기고 5면 - 명원관 전라남도의회 의장 / 영·호남 '상생과 화합' 이제는 실현할 때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정질문/5분 자유발언 14면 - 도정질문 · 배영애 · 윤종도 · 박용선 · 김종영 · 장두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포커스 / 특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4면 - 배한철 윤리특별위원장 - 구자근 경목 · 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활동 6~13면 - 의회운영 · 기획경제 · 행정보건복지 · 문화환경 · 농수산 · 건설소방 · 교육위원회 / 특별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인중 의원 - 5분 자유발언 · 이진탁 · 박성만 의원 ■ 주요 차의안전 소개 / 건강칼럼 15면 |

제276회 임시회 개회사

해빙기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대책 당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는 희망의 계절을 맞아 오늘 제27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중에도 동서화합의 물꼬를 트는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합의문 채택과 상호 방문,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규탄 성명발표 및 독도 수호 결의대회, 지방실정을 무시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촉진 조례" 폐지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따뜻한 설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구별 사회 복지시설 방문 등 경북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지방자치법 개정 영남권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지방자치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도 공직자의 최대 의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다고 봅니다.

해빙기를 맞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공사현장, 다중이용시설, 저수지 등에 책임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도내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산불 예방으로 산림 자원 보호와, 학교폭력과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예방 등 도정과 교육 행정 추진에 있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중장기 대책마련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월성원전 제1호기 수명연장과 영덕원자력발전소

유치 등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부정책과 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을 비

롯한 각종 안전을 처리하게 됩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지역균형 발전 및 도민의 복지증진 방안과 현장 민심을 전달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고 집행기관에서도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우리 도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토론 속에서 도민복지를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12.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

도정질문, 현지 확인 및 민생관련 각종 안전 심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지난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지역균형 발전, 도민

의 복지증진 방안과 현장 민심을 전달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출자출연기관, 영유아 보육시설, 농업·해양·수산·

관련 사업장, 도청신청사, 건설공사 사업장 등 도내 곳곳을 발로 뛰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전남·전북·충남 등 다른 시도를 방문

하여 우수 사례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점은 타산지석으로 삼는 기회를 가졌다. 더불어 올해 4월에 열리는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을 홍보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전 13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



의정만평



경상북도의회소식

발행인: 장대진 기획·편집: 장영호, 임필규

편집인: 정병문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영랑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장대진 의장, 대통령 주재 간담회 참석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4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 참석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경제활성화와 국민대통합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조장하는 조례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기 위한 경북도의회의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현황을 지방의회의 수

범사례로 보고했다.

또한 경북도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할매·할배의 날’을 제정하여 확산하고, 공감과 배려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을 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지방의 정신문화 진흥 정책에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각별히 부탁했다.

장대진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의회를 존중하고 대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



경북도의회,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나섰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26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시민단체, 교수, 기업인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의정포럼’ 출범식을 가지고 처음으로 창립회의를 가졌다.

경상북도 의정포럼은 도의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의정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열린 의회, 소통하

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 100명으로 7개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의 지방의회 중에서도 이와 같은 대규모의 전문가집단이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정책지원을 위해 의정포럼제도가 구성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려지고 있다. ☀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방안 대토론회 개최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3월 9일 대구에서 개최된 영남권 토론회에 이어 3월 27일 전주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하여 호남제주권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장대진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입법정책연구관으로 구성된 자치

법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계속 이어감으로써 지방자치법 총 175개의 조문 중에서 60여 개의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그리고 협의회 내의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어 충남권, 수도권 토론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후, 오는 7월에 국회·정부에 건의한다. ☀



경북 - 전남도의회, 상생발전 초석을 다지다

경상북도의회는 3월 10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의회가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공동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상생발전 공동협약은 지난 2월 24일 상생발전 공동 합의의 후속조치이다.

공동협약서에는 양 도민의 이해증진과 교류협력사업 적극 추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대감 형성에 적극 노력, 정기적인 상호 교류를 통한 동반자 관계 유지 발전, 양 의회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협약이 성실히 이행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경북도의회,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교류협력 강화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은 3월 17일 오전 11시 도의회를 방문한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도와 울란바토르시 간 산업, 경제, 문화 등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장대진 의장을 비롯한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 한혜련 국제친

선의원연맹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볼드바타르 게르구역개발자원위원회 위원, 알탕체책 법률행정조직위원회 위원, 몽크바야르 예산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등 5명의 대표단과 상호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특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집중 인터뷰

가장 깨끗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채찍꾼이 되겠습니다



배한철 윤리특별위원장(경산2)

지방의회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방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해야 할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처럼 도의원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며, 이 지표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더 나아가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7월 제10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배한철 위원장(경산2)은 경산시의회 의장을 거쳐 제9대 도의회에서 행정보건의복지위원,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 등을 역임한 재선의원으로 풍부한 의정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 과묵하고 다소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다부진 외모와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배 위원장은 의정활동에서도 논리가 분명하고, 대의명분에 어긋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정의감이 투철한 중진 의원으로서 도의회 내에서는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제10대 도의회에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 선출된 것이다.

지난해 8월, 위원장 당선 인사를 통해 “의원들의 자격·윤리심사 및 징계 등 동료의원들의 신변에 관한 사항들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소명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후징계보다는 사전예방을 통해 깨끗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도의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회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고쳐나감으로써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 윤리특위 간담회와 워크숍 수시 개최, 행동강령 자문위원들과의 정책토론회, 청백리 유적코스 답사, 지방의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배한철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 실천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여 경상북도의회가 윤리의식과 청렴도에서 전국 지방의회를 선도해 나가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나고 도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위원장으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

의회가 주도하는 경북·대구 상생의 밑그림 그릴 것



구자근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장(구미3)

“경북과 대구는 1981년 분리된 이래로 국책사업 유치 등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 가고 있지만 태초부터 한 뿌리인 경북과 대구가 갈등으로 소모전을 치루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갈등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구성된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들과 함께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해안을 모을 것입니다.”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밝힌 구자근 위원장의 취임 소감이었다.

구자근 위원장은 재선의 지역구 출신 도의원으로 제9대 때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제10대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경제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수도권 U턴 기업 재정지원과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길을 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 특별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상생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북과 대구는 양 지자체간 상생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대구경북한반리상생위원회를 발족하여 제7차 세계 물포럼 개최, 「국제 관광박람회 공동개최」, 「중소기업 브랜드 공동매장 운영」 등 28개 상생 협력과제를 선정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주관의 협력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결과물이 있는 협력을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경북도청이 2015년도 하반기에는 산격동 시대를 끝으로 예천·안동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리적으로도 떨어진 거리만큼 양 지자체간 상생의 길도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경북·대구 상생협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구 위원장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자근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북과 대구의 양 의회에 구성된 상생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멀어지는 관청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더욱더 촘촘한 상생의 밑그림을 충실히 그려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경북과 대구간의 상생을 넘어 중앙과 지방의 상생도 중요한 만큼 대구시 상생특위 위원들과 함께 중앙-지방간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영·호남 '상생과 화합' 이제는 실천할 때다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라남도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지난 10일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실로 뜻 깊은 일이다. 이번 공동협약은 지난해 11월 동서화합포럼에 참석한 양 도의회 의장이 지역 간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국민대화합을 위해 도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고 뜻을 모으면서 추진되었다. 이후 여러번의 사전토의를 거쳐, 올해 2월 24일 전남도의회 의장단 일행이 경북도의회를 방문하여 공공합의문을 채택했으며, 이어서 답방형식으로 경북도의회 의장단이 우리 도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번 협약은 상생발전 공동 합의에 따라, 양 의회가 지역의 공동발전과 국민대통합, 나아가 대한민국의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두 지역은 정치권에서 야기된 편협한 지역주의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오고 있다. 한 국이라는 조그만 땅에서 동서로 갈리고 남북으로 대치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하지만 양 지역은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대구의 2.28과 광주 5.18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다.

이번에 우리 도를 방문한 경북도의회 의장단도 이를 기리기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양 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분권의 시대적 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양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라남도과 경상북도가 호국 총절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양 도민의 이해 증진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둘째,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영호남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유대감 형성에 노력할 것과 셋째,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의회와 지역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대 조성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를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박대통령 임기 3년차인 지금까지 이 사업 역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서화합을 위해서는 도의회나 지방정부차원의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치권과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지역갈등을 조장하여 중앙정치에 이용했던 '정치 지역구도'의

악습을 타파하고, 지역 간 거리를 좁혀 인적·물적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도로·철도망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 예술분야에서도 교류의 폭을 넓혀 민간단체뿐 아니라 양 지역주민 모두가 자연스레 상생과 화합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도로·철도망 확대로 교류 늘려 양지역 상생의 기반 다져야

또한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상임위원회 연찬회 교차실시, 합동심포지엄 개최, 전직 대통령 생가방문, 도민의 날 및 생활체육행사 정례 교류, 영호남 공동협력사업 적극 발굴과 교류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양 도의회간의 우호증진 노력은 이제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범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것이 '동서통합지대'조성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12월 말 열린 제3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전남과 경남의 경계인 섬진강 양안을 문화·관광지대, 신성장 산업벨트 등으로 조성하는 동서통합지



제27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독도 수호의지 다지는 독도 임시회 개최 결정



조례정비 특위 구성, 제277회 임시회 회기협의 등 안건처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경상북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제277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1월 26일, 제275회 임시회에서 곽경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제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함에 따라 경상북도와 도 교육청의 현행 조례·규칙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일제정비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차기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개최 일정 및 장소와 관련한 회기협의의 건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는 제277회 임시회 개최식을 독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최근 더욱 노골화 하고 있는 일본의 영토 야욕과 군국주의 망동에 대응하여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국내·외에 천명하고 독도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1. 의회운영위원회

2.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제7기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경남 통영에서 열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인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군위)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양일간 경상남도 통영에서 개최된 제7기 전반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조 정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채택하였으며, 그

밖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관계자로 부터 제4차 정기회시 제출 안건에 대한 시·도의장협의회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아울러 지방의회 발전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



제27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조례안 심사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276회 임시회 기간중인 3월 16일 11시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대응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채권상환이율과 융자금의 이율 등 융자조건에 탄력적 운용으로 금리인하 시 바로 도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정금리로 되어있는 이자율을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별제한법」 개정(2015. 1. 1 시행)에 따라 조례



1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출자·출연기관 방문 문제점은 개선요구, 발전방안은 모색, 어려움은 해소

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감면율을 조정하고 법체계에 맞게 일몰 도래분을 기한 연장 또는 삭제하고, 감면조례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어서 3월 17일~19일까지 2박 3일간 출자·출연기관 업무현황 청취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다. 출자·출연

경북통상의 설립목적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판로 개척, 수익보다는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경영

기관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북테크노파크와 통합이 결정되어 절차를 밟

2

1. 협곡열차 중간역인 승부역 방문
2. 경산 경북통상(주) 방문
3. 영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방문



3

고 있는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과 천연염색연구원을 방문하여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과 발전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신분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맡은 바 소임을 다 한다면 인위적인 인력감축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빠져 있어 도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경북통상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경북통상의 설립목적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판로개척, 농산물 수출 등에 있는 만큼 너무 수익에 집착하지 않고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경영하는 방안을 주문'하였다. 그 예로 농산물 가격 폭락 시 매수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지난해 연말 대통령령이 방문하여 의욕적으로 개소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번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한 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은 현장을 모르는 의정활동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현장을 알아야 문제점이 보이고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화두는 '우무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말로 될 수 있으면 현장을 많이 보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제276회 임시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활동

예산 수반, 도(道)의 중요사업 추진시 상임위에 사업 당위성 충분한 설명후 의회 승인 받아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3월 23일(월)에 상임위를 개최하여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가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먼저,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가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에 강제 합병된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을 되새겨, 다시는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매년 8월 29일에 공공기관 청사 등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자는 취지로 원안 가결하였다.

이어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10년 넘게 계류 중이고, 정부도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다음으로 황병직(영주) 의원 등이 발의한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십자사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재난구호 및 사회봉사활동 등 사업추진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집행부는 의회가 견제·감시자 역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뜻에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생각 필요...

도청이전에 따라 주거안정기금 신청지역 확대

이해 황병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상정한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 이전에 따라 주거안정기금 신청대상을 당초 5급 이하에서 3급·4급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하고 대부금 신청지역은 도청신도시 내를 우선하고 안동·예천을 비롯한 영주·문경·상주·의성 등 4개 시·군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공무원과 함께 이주하는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의 이주에 따른 형평성이 개선되고,

도청신도시 우선 정착 유도와 인근 시·군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부지 및 건물 취득」건과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지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매입」건은 2014·2015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에도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부결(삭제)하고, 「농업자원 관리원 영천포장 국유지와 도유지 교환」건은 원안 가결했다.

특히,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기부채납에 필요한 재산의 가격, 도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며 관리계획에서 부결(삭제)했다.

이날 안건 심사를 주재한 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도의 중요사업 추진 시에는 도 의회에 사업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의회 승인 등이 필요하다며, 집행부는 의회가 견제·감시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동반자로서 도민들의 뜻에 함께 간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한편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는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3.17부터 3.18일까지 양일간 도내 울진군 일원 영유아 보육시설과 노인요양복지시설을 현지 방문하여 최근의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와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



1.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2. 울진 병해어린이집 현장방문
3. 울진 노인요양원 현장방문 의견청취

문화환경위원회

제276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1



1. 2015년도 문화환경위원회 연찬회
2. 전주 한옥마을 한장 방문
3. 세계물포럼 버스현수막 홍보

2



3



연찬회 통해 전문성 제고와 시책 벤치마킹, 세계물포럼 홍보 전개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제276회 임시회 기간중인 3월 18일(수)부터 3월 19일(목)까지 소속 의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북과 충남 일원에서 2015년도 의원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강 ▲타 시도의 역사문화 유적지와 친환경개발 보존 사업장에 대한 벤치마킹 ▲세계물포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 ▲전북도의회 관련 상임위와의 간담회 등 알차고 내실있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교육 강의 및 세계물포럼 홍보활동 전개

위원회는 이번 연찬회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운영 전문가로부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해 특강을 듣고 공감과 함께 이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해보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하였으며, 교양과목으로는 고고학을 전공한 백제문화의 권위자로부터 풍부한 현장 발굴 고증사진 등을 통해 백제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의미있는 특강을 가졌다. 특히, 이번 특강을 통해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신라·가야문화 및 유교문화의 본산지인 경북에서 고대 삼국의 한 축을 이루는 백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연찬회 기간동안 오는 4

전주 한옥마을과 백제문화단지 시찰로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월 12일부터 1주일간 대구와 경북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버스 현수막 부착과 방문 사업장 홍보전단지 배부 등의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와 전북도청 관계자들과 가진 상호 협력증진 간담회에서 세계물포럼의 성공을 위해 성원과 지지를 당부하는 등 의회 차원의 지원활동에 적극 나섰다.

한옥마을과 백제문화단지, 새만금 등 사업현장 벤치마킹

그리고, 위원회는 약 700여 채의 한옥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근대 주거문화 공간인 전주 「한옥마을」과 지난 '94년부터 20년간 6,970억원을 들여 백제 역사를 재현한 부여 「백제문화단지」 등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고유 한옥과 골목길, 전통성당 등 전통문화와 역사 자원의 가치를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전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난 점에 대해 주목하고 경북도내 각종 우수

한 문화자원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옥마을은 지난해 관광객이 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찾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이곳에서는 먹거리와 한옥숙박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백제문화단지는 충남도가 역점을 두고 민간기업과의 합작으로 개발하여 상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한 지역으로,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중인 경주 「신라왕 경해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무엇인지 현지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위원회는 군산과 부안을 잇는 33.9km의 세계 최장 방조제를 비롯해 총사업비만 22조 2천억원을 투입한 새만금간척사업 현장을 찾아 대규모로 추진된 국책사업인 「새만금 글로벌 도시개발」이 친환경적 개발의 모델로서 가장 큰 걸림돌인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과제에 대한 대응책과 갈등해결 과정 등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배우고 답을 찾는 내실있는 연찬회를 실시했다. ☀

농수산위원회

제27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경북 농식품 수출확대정책 추진계획 보고 청취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북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활력 모색 주문

농축산유통국 당면현안 보고 청취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76회 도의회 임시회 개최날인 3월 12일 본회의 종료 후 의원사무실에서 농축산국장으로부터 당면 현안 사항으로 경북농식품 수출확대정책 추진계획 및 농업자원관리원 영천포장 공유재산 교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경북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계획,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계획 등 FTA 시장 확대를 기회로 활용하고 농어업인의 자생력 및 역량 강화, 지역특화 품목의 시군 연계 등을 통한 지속적·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경북도의 정책들을 확인한 후 FTA에 맞서기 위해 현장중심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북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영천포장의 영천경마장 진입로 확장공사 부지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은 재산의 가치 상승과 이용 효율성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 전개

또한, 농수산위원회는 제276회 도의회 임시

포항·영덕 관내 농업·해양·수산 관련 사업장 방문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청취

회 기간 중인 3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불법어업지도, 연안정비, 항만개발, 농가 소득증대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포항시와 영덕군 관내의 관련 사업장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17일은 먼저 포항운하를 방문한 후 불법어업지도·단속,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해난사고 어선구조가 주요 임무인 「도 어업지도선 경북 201호」에 승선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승무원들을 격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포항영일만항 방파제 측조공사 현장과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PICT)」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청취하고 주요시설 및 장비들을 직접 확인했다.

위원들은 진정한 해양경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해안의 특성화된 항만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해양물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도 집행부에 환동해

거점항만 기반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포항시와 포항영일만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영덕군 강구면 소월리로 이동해 양수작업시 오십천 해수 유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현장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강구항 북방파제 등 친환경 연안정비사업장을 방문해 지난 5년간의 사업성과와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다음날인 18일 오전에는 영덕군 「영해 3·18 호국정신문화제」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 지역의 대표작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영해면 연평리 소재 「시금치 재배단지」를 방문해 돈 버는 농업 육성 지원사업과 무·배추 채종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건의사항들을 수렴했으며, 마지막에는 어항 정비사업 대상지인 축산면 경정3리항을 방문해 방파제 및 시설물 등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정영길 위원장은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현장 지식과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도정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도민들의 삶의 현장 방문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1. 포항 「도 어업지도선 경북 201호」 운영상황 점검

2. 영덕 영해 시금치 재배단지 방문

3. 강구항 친환경 연안정비사업장 방문



건설소방위원회

제276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1. 심폐소생술 체험
2. 소화기 체험
3. 청기터널 해빙기 안전점검

건설소방위원회, 소방 안전체험 및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봄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으로 안전사고와 재난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조례안 일부 개정 등 현안사항 심사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3월 13일, 3월 25일 이틀간 제2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의(1차, 2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사·의결 후 3월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

3월 13일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수용 의원(영천)은 요율상한제와 고정요율제의 문제점, 박용선 부위원장(비례)은 열악한 공인중개업계에 대한 해결방안, 김수문 의원(의성)은 소비자 및 공인중개업계의 상생방안, 장영석 의원(구미)은 개정 조례안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적했으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1차 유보결정을 내렸다. 이어 3월 25일 재개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들 간 '상한요율'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고정요율'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중개업계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특히 홍진규 의원(군위)은 개정안과 고정요율제의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최종 정부권고안대로 원안 가결되었다.

3월 26일 임시회 본회의 통과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 상한을 종전 0.9%에서 0.5%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임대계약을 할 때는 상한을 0.8%

에서 0.4%로 낮추는 국토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중개보수(복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 들게 되었다.

심폐소생술(CPR)·소화기·완강기 소방안전체험

3월 13일(금) 제276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소방공무원의 위기대응능력을 점검하고 또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 관계 공무원의 시범 교육하에 '심폐소생술(CPR)·소화기·완강기' 소방안전체험 시연회를 관람하고

직접 체험했다.

특히 이번 소방안전체험 시연회는 각종 재난사고가 빈번한 이때 안전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일깨우는 자리가 되었다.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평소 재난 대비 태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준 세월호 참사를 거울삼아, 아무리 좋은 소방장비가 비치되어 있더라도, 사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소방장비 사용이 익숙해 질 때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안전 체험교육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빙기를 맞아 '안전' 직접 확인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도청신청사 현장방문,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건설소방위원회 현지확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우선, 도청 신청사 현장(안동)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도청신도시본부(본부장 최대진)로부터 신도시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조성

공사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겨우 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 노반침하, 시설물 붕괴 등 대형 사고의 발생 우려가 큰 해빙기를 맞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공사가 진행중인 동서4측 상주-영덕간 고속도로현장(청송), 지방도 920호 청기터널 건설공사(영양) 현장 및 왕피천 고항의 강 정비사업 현장(울진)을 찾아 공사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사업장내 터널 구조물과 지반의 균열·침하·세굴 등의 발생 여부확인과 상부사면의 낙석 발생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사고와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경산)은 해빙기를 맞아 재난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안전점검과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물 등에 대해 집중관리하여 불안요인을 사전에 발굴, 조치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교육위원회

제27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경북 - 전남 교육현안 공동 대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방안 공동 모색

조례안 심사

교육위원회는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에 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은 학부모들

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과 환경보전의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근거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원안 가결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등급지 변경으로 연간 1,428만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며,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명시하고, 교복나눔의 날 지정,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도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공적이 현저한 학교·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했다.

교육위원회 구자근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일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복나눔운동이 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참여기관이 확대되고 교복나눔운동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도의회 방문

교육위원회는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교육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기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에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해 전남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 시책, 우수사례 등을 비교 분석했으며 이와 관련한 상호 토론회 등의 시간을 가졌다. 비정규직 문제는 교육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교육발전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13일 복통을 호소하는 7살 어린이의 응급 후송을 위해 어둠을 뚫고 출동했다가 가거도 해상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경대원들의 활동분향소를 방문하여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



1. 전남도의회방문(현지확인)
2. 비정규직 문제(토론)
3.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276회 임시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경북과 대구” 상생의 틀
다지겠다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구자근)는 제 276회 임시회 둘째 날인 3월 13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구자근 위원장은 “남부권 신공항 공동유치, 2015년 세계 물포럼 공동 개최, 중소기업 브랜드 공동매장운영 등 경북과 대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경북·대구 상생발전을 위한 발전적 정책제안과 연대의 틀을 확고히 다짐으로써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276회 임시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경북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방분권 필요하다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호)는 제 276회 임시회 첫째 날인 3월 12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김명호 위원장은 “분권은 커녕 경제와 정치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이양과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위원들과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276회 임시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

원자력발전시설 재해·재난 대비
철저한 방재대책 세워야...

경상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3월 6일 울진 한울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가 전국의 원전 23기 중 11기가 가동 중에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하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자 제 10대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해 8월 26일자로 구성(9명) 결의했다.

원전안전특위는 도 관계 부서, 울진군의회 원자력관련특위, 한울원전 본부측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원전관련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고, 울진원자력 홍보관을 방문해 한울원전본부로부터 본부현황과 신한울원전 1, 2호기 건설현황 및 신한울원전 3, 4호기 추진현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



제276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경북도의회, 모든 조례 하나하나
점검하고 일제정비에 나서...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현행 조례(도 380개, 도교육청 55개)와 규칙(도 107개, 도교육청 67개) 중에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행정환경이 바뀌어 그 기능을 상실한 조례·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일제정비를 위하여 지난 3월 26일, 제 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정비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7명(곽경호, 김위한, 남천희, 이상구, 장용훈, 조현일, 최태림)의 위원이 선임되었고, 본회의 정회 중에 열린 제1차 특위회의에서는 곽경호 의원(칠곡)을 위원장으로, 김위한 의원(비례대표)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



도정질문

건물화재 등 재난대응, 의용소방대 및 서울사무소 방만 운영 대책 촉구

배영애 의원(비례)은 도내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과, 시대 변화를 반영한 의용소방대 존치 여부 검토 및 서울사무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먼저 김천혁신도시 16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시 김천소방서 보유 고가사다리차로는 속수무책인 것과 같이 도내 고층건물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과 세계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경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배영애 의원(비례)

또 의용소방대가 대규모 조직·예산에 비해 활동이나 성과는 미흡하다며 존치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소방대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경북도와 13개 시군이 설치한 서울사무소 방만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사무소간 통합운영, 실적평가 등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화장시설 사용료 차별, 도문화재 관리, 댐 주변 주민지원 등 대책 촉구

도내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은 청송, 경산 등 14개 시군으로서 타 시군의 화장장 사용시 접수의 어려움 및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는데, 특히 화장시설 관내주민은 5만원인데 비례 관외주민은 40만원으로 불합리하게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시설이용 시에도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도 의원(경북)

또한, 도 문화재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보다 화재·도난사건 등 인재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아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을 지적했으며,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한 등록문화재 지정도 중요함을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도내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는 획일적인 사업추진과 보상, 턱없이 부족한 사업지원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영주·성덕·보현산댐의 완공을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각종 사업 수주 대도시 업체 선호 여전 - 지역업체 홀대, 상생은 빈말?

박용선(새누리당, 비례) 의원은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60% 권장'의 내용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폐지토록 지시한 것은



박용선 의원(비례)

지역경제를 완전히 고사시킬려고 하는 개악시도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건의'에 대한 후속조치 미비를 지적하고 도 및 교육청의 각종 SOC사업과 축제 관련 사업의 발주와 관련하여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각종 사업 발주 문제점의 사례로 교육청의 경우는 작년 한해 총12건 중 무려 절반인 6건이나 타 지역업체가 선정되었다고 질타했다.

향후에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업체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도청 이전지 정주여건 미비 지적과 면세점 유치 촉구

김종영(포항)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신도청 이전에 따른 직원 주거 대책, 경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면세점 개설, 연일 자명천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신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성된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겪을 불편에 대하여 철저한 제반 점검 후에 체계적으로 이전할 것과 최근 경북도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도내 면세점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확정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형산강 효자2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하천 환경정비사업계획으로 인근 주민이 겪게 될 침수피해 예상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김종영 의원(포항)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펼쳐라

경상북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태양열과 천체의 환경인 경상북도수목원의 풍력을 이용한 미래 에너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금처럼 확산된다면 3년 안에 한반도에서 소나무가 전멸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시·군 경계지역의 재선충 고사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컨트론타워 설치를 제안했다.



장두욱 의원(포항)

또한 산림행정의 추진성 극복을 위해 산림행정 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학교가 전국 평균 15.6%에 크게 못 미치는 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성평등 수준 제고 및 여성 일자리확대·개선해야

김인중(비례 대표) 의원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성평등 및 여성 일자리 정책, 지역보건환경의 문제점과 교육현장에서 폭력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인중 의원(비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지역 성평등지수는 경북도가 전국 광역시·도 중 하위수준이며, 또한 2014년 12월 현재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4%로 남성의 76.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도 본청의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내 새일자리지원본부, 여성일자리사관학교 등 유사한 조직만 중복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며, 내실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여성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것과 성평등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

도내 교육지원청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설치 촉구

이진락 의원(경주)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장애학생 및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시군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현장의 중심역할 기관임에도 현재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된 지역은 9곳에 불과하다며, 그 어느 곳보다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조하고, 사후 관리에도 지속적 관심을 가지는 등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사회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진락 의원(경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지역민심에 철저히 반하는 것

현재 지방에 소재한 13개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중 9개 대학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우리 지역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도 경기도 동두천 미군 공여지구로의 이전을 위하여 동두천시와 MOU를 체결하는 등 수도권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학 설립 시에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대학을 설립하여 놓고는 교육부의 구조 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역의 민심에 철저히 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동양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도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



제276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이태식 의원 외 13인 2015. 2. 24.
- 제안이유 : 지역개발기금의 공익사업 지원기능의 강화와 운용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채권상환 이율의 탄력적 운용과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간을 삭제한 것임.

▶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2. 27.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감면율을 조정하고, 법체계에 맞게 일몰 도래분을 기한 연장·삭제하고, 감면조례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자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김명호 의원 외 10인 2015. 2. 27.
- 제안이유 :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박탈했던 뼈아픈 날을 되새겨 다시는 그러한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경술국치일(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하기 위한 것임.

▶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황병직 의원 외 6인 2015. 3. 2.
-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황병직 의원 외 9인 2015. 3. 2.
- 제안이유 : 이주공무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안정기금 신청대상을 3·4급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도청 이전에 따라 10만 자족도시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

하여 도청신도시 거주를 우선으로 지원·유도하며, 이주공무원의 대부금 신청 지역을 인근 시·군으로 확대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2. 27.
- 제안이유 :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에너지화를 위하여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민간제안방식으로 조성하고, 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 국가5산업단지) 7-1-1블록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외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산업시설용지를 매입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수입대체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영천경마장 진입로 확장사업으로 인해 농업자원관리원 영천포장의 일부 시설물 및 부지가 진입로에 편입됨에 따라 영천포장 내에 있는 국유지와 인근 지역의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벼종자 생산기반시설 부지를 확보하고자 함.

▶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 제안자 : 배진석 의원 외 10인 2015. 2. 24.
- 제안이유 :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자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시급한 국제적 인권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이 북한인권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함에 있어 오랜 기간 지체하고 있음은 우리의 마땅한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려는 것임.

▶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2. 27.
- 제안이유 : 15년 전에 만들어진 주택의 중개보수 체계가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 제안자 : 구자근 의원 외 8인 2015. 2. 27.
- 제안이유 :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도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과 환경보전의 친환경 교육을 실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2. 26.
- 제안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에 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적용하고자 함.

▶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2015. 3. 13.
- 제안이유 :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 중 오늘날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각종 법규와 상충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조례를 전면 조사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거나 관련 법령의 삭제·변경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 경 호
영동한의원장

꽃피는 봄이 오면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기온이 오르면 대기가 건조해지면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증세가 심해지는데, 여기에 황사나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먼지로 인해 증세를 더욱 악화된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차이가 있는데, 황사는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일어난 봄철먼지가 강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온 것을 말하며, 흙먼지가 발생한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어 우리가 사는 한반도 까지 날아온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각종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등이 합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앞으로 산업화가 더욱 진행되고 기상상황이 나빠진다고 봤을 때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더욱 증가되리라 보여진다.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문제를 보면, 눈에 자극을 줘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각막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코에도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해 재채기나 맑은 콧물,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보통 10 μm 미만의 먼지를 미세먼지라 하는데, 2.5 μm

건·강·칼·럼

봄철 호흡기 질환에 좋은 한의약 치료



미만의 더 작은 미세먼지는 폐 속 깊이 침투해 폐포에 흡착 되어 기관지 염증이나 천식을 일으킨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노약자나 평소 호흡기 질환을 갖고 계신분들은 실외 활동을 삼가해야 하며, 외출시에는 마스크, 모자,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하며,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씻고 흐르는 물에 코를 씻어줘야 한다.

그리고 평소에도 규칙적 운동과 적절한 섭생으로

몸의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도 기본적인 사항이다. 미세먼지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쉽고도 좋은 방법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다. 물을 자주 마시면 수용성 먼지를 씻어내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몸의 항상성 유지에 도움을 줘 호흡기 질환을 이기는데 도움을 준다. 해조류도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이다. 해조류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중금속 배출에 효과적인 칼륨 등 무기질이 풍부해, 미세먼지를 극복하는데 좋은 음식이다. 또한 녹차도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이다. 녹차에는 중금속 배출과 호흡기 질환의 염증에도 도움이 되니, 봄철에 녹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알레르기 증세가 나타나 콧물이 계속 흐르고 재채기나 분비물이 나온다면 세신(細辛)과 오미자(五味子)를 각각 15g 정도씩 다려서 복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신과 오미자는 소청룡탕이라 하여 알레르기성 코질환에 효과가 좋은 처방에도 들어 가는 약재로써, 환절기에 나타나는 계절성 알레르기 질환이나 꽃가루 집먼지 알레르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약재들이다. 이 외에도 비강을 사혈하는 방법이나 약침 치료도 좋은 효과를 보이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다. ☺

영동한의원 / 영천시 강변로 65(금노동)
(☎ 054-332-8398)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http://council.gb.go.kr>



지방자치 바로세우기

이 땅에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영광과 고난을 겪으며 달려 온 60여 년.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로 거듭날 시대입니다.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길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도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